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하나님 말씀의 효능

(예레미야 15: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치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하는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주님은 그가 유대인이 포로될 것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으며 그가 내린 언도가 시행되어야 함을 선언하신 뒤, 다시 말해 이 백성이 포로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신 뒤, 선지자 자신이 그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다시 말해 선지자가 판결을 포고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시려 했음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로 장난처럼 여기게 하지 말고, 네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확신케 하라.”

우리는 이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에게 범죄하는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선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복하여, 우리가 참되고 생생한 지식에 접하는 것을 기뻐하시되, 이런 지식에 기가 꺾인 우리를 생생한 소망으로 다시 일으키사 우리가 그에게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가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지향하지 않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에게 주시기를….

1.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는 그의 선지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것이 우리가 견뎌야 할 위협이건 책벌이건 우리는 그것을 우화로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교리에 어떻게 감동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공훈에 대해 말할 경우,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데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위협에 대해 말할 경우 결코 절망하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지 맙시다. 그가 우리의 정결함에 대해 모른 채 한다 해도, 그가 자신의 말씀을 잊었다고 생각지 맙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새긴다면, 확실히 우리는 그 교리에서 훨씬 나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이것이 우화인 것처럼 그냥 흘러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만큼, 그가 우리를 벌하겠다고 위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예

방하지 않는 한 우리 머리 위에 타격이 임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끌어 이 일을 수행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2.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런데 그는 그들을 벌하면서 끔찍이도 엄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강한 힘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사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마치 공중에 매달아 놓아 거의 타격을 느끼지 못하는 식으로 처벌하시며, 처벌하신 후에도 그는 우리로 지나간 악을 잊게 하는 어떤 완화제, 즉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려야 할 징벌을 보이기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하는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나는 이전과 같이 더 이상 너희의 보호자가 아님을 밝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징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것은 그가 사용해 오지 않던 가혹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경고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징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오직 가르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무 굽뜨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필요하지만, 거친(rude) 학생에게는 가르침과 더불어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귀들이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

초리를 세워 우리를 자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징벌 받는 것이 필요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관용 속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징죄하기 위해 관용으로 앉으신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에게 알리는 바로서, 즉 하나님은 극도의 가혹함으로 유대인들을 징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하는 바 이는 우리도 동일한 입장에 있으며, 우리의 삶이 너무도 불행해서 그곳의 불의의 심연이 있음을 발견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그들과 닮았음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면서, 그가 동일한 처벌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가련한 자들처럼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고 우리를 향해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처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대로 계속해서 그에게 범죄한다면, 우리는 그 처벌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마치 벼락처럼 들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그의 강한 손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가혹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는 “죽이는 칼과 찢는 개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흠우리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너희가 새와 짐승과 개에게 먹히울 때, 너희에게는 이것이 우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우연으로 돌릴 것이나, 그러나 이것이 내 손으로 된 것을 알라.” 요컨대 선지자는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밝히고 싶었는바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선의 연함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일어나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고삐를 느슨하게 하고 이 짐승들에게서 우리에게 대한 복종을 제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명심하되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우연으로 들리지 않고 그것이 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을 우리의 공상에 단번에 새겨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극하지 않는 한,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검(glaiv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인 바, 하나님이 먼저 검의 호기심을 돋우지 않는 한 사람의 손이 우리를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때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서 일어나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되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으므로 이유가 없지 않음을 깨달읍시다. 이것이 본 구절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할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며, 설령 우리가 검에서 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복으로 가득 찬 상자를 갖고 있다고 말씀할 때, 우리는 즉각 다른 것에 빠질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처벌이 지난 뒤에든, “웬일이니? 이런 악은 그렇게 빨리 다시 오지 않을거야”

[라고 말하면서] 방탕하는 일과 더욱 나쁘게 행하는 일을 스스로 허용하고, 하나님이 백 가지 방법을 쓰신 뒤에도 여전히 다른 백 가지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검을 보낼 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과 들짐승을 보내사 우리를 먹어치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가 너의 집에 편안히 있을 때 내가 뱀을 보내 너를 물게 할 것이요, 네가 들로 나간다면 짐승이 너를 먹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으로서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역경에서 건지시는 방법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가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벌하시려 할 때 그에게 우리가 아직 익숙지 못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 끊임없는 회개 요청에 대한 거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는 방법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일로 책망 받게 되리라는 것을 주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아끼는 것과 뜻을 돌이킨 것을 후회한다”(렘 15:6)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이 백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선지자 위에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으셨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마치 신명기 18장에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기록된 것과도 같은데, 그 의미는 백성이 선지자를 못 갖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말하는 신들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있어야 합니까?”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내가 너희를 부추기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감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협이 어떤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그들을 경고했음을 주목합시다: “너희는 썸을 치르러 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너희를 살피라.”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조롱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매우 엄하게 비난받을 때면 선지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들의 무기로 훈계하여 말했습니다: “모든 신분이 어떤가?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는가? 정의가 어디 있는가? 너희 중에 있어야 할 충성은 어디 있는가? 너희는 모든 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이를 갈고 분노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들[선지자들이] 개에게 말하는 것 같네! 이렇게 꾸지람 듣는 것을 우리가 참을 것인가? 아닐세, 결코 아닐세!” 그리하여 선지자들이 주님의 직무를 말하며 “너희가 행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무어라고? 주님의 직무? 이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야 하나?”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교황체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에게 행해지는 설교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짓누르시지 않을 때면 그들은 조롱자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계산으로 초대하려 할 때, 그들은 분노하여 이를 갑니다: “어찌 일인가? 이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쳐댈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르는가? 이보게! 충분히 참고 견뎠네! 복음을 빙자하여 그렇게 외친다고? 호! 우리는 여기서 이런 복음을 원치 않으니, 다른 데나 찾아보

계!” 우리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요서하기에 지켰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별안간 책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하나님은 오늘처럼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변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린 아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볼 것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은 가려졌고 아무것도 못 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 이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 언급한 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라고 덧붙입니다. 명백히 그는 이 거룩한 도시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에게 바쳐졌는데 이는 그의 이름이 그곳에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익하게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악으로 바꾸면 바꿀수록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의 저주로 바꾸면 바꿀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는 사람들이 변명을 늘어놓았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처벌하실 수 없음을 알기에, “네가 나를 버렸다”(15:6)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화법을 보았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이것을 그리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어째선가요? 그것은 우리 악의 원인이 우리에게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악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뿐

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잘 산다면 내일 유익을 얻을 것이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온갖 혼동에 빠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명백히 선지자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쓴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눈앞에 그의 불의를 드러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마땅히 떠는 반면, 사람들은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제의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술 취한 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강단에서 이것을 언급했다”고 말하면, 그들은 다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위엄을 보이시라 그들을 혼돈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하나님께만 의지함

나아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유일한 은신처를 그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에게 범죄하는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선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복하여, 우리가 참되고 생생한 지식에 접하는 것을 기뻐하시되, 이런 지식에 기가 꺾인 우리를

생생한 소망으로 다시 일으키사 우리가 그에게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가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찾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지향하
지 않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
과 모든 나라에게 주시기를....(*)

1549년 6월 24일

-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박건택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5-57.
Supplemente Calviniana. VI, 14-21.